

「2026 복합지원 - 힘이 되는, 희망을 잇는 연계」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말씀

※ 보도 편의를 위한 자료로, 실제 발언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임

-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림
- 특히, 복합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직원과 기관, 모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함

□ 오늘은 정부와 복합지원 관련기관이 모여 '24년 초부터 힘을 모아온 복합지원 정책의 2주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얘기해 보는 자리임

□ 현장에서 살펴본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채무, 실업, 질병, 생활고가 서로 얽혀 악화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단일 지원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졌음

□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나뉘어져 공급하던 금융, 취업, 복지지원 정책을 한 번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,

- 지난 2년간 서민금융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약 21만명께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음

□ 올해 복합지원 계획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,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

- 의료·노후·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

연계 분야를 추가로 확대하고,
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며,
'지역 밀착형 복합지원'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임

- 아울러, 모바일 앱 토스에서도
복합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
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,
- BNK부산은행에서는
복합지원 전용 소액대출·적금상품을 시범 출시하여
이용자의 일시적 위기해소를 넘어
제도권 금융으로 재진입을 지원하겠음

□ 금융·고용·복지의 여러 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
오늘 자리는 특별함

- 우리가 힘을 모을 때, 현장에서 더 많은 분들의
삶을 바꾸는 지원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임
-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이 있음
“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, 함께 가면 멀리 간다.”
복합지원은 바로 이 ‘함께 가는 힘’을 기반으로 함
한 사람의 위기를 여러 기관이 함께 감싸 안을 때,
단순한 행정적 지원, 연계를 넘어
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

□ 앞으로도 이용자 분들의
복합지원 만족도를 높이고
성공적인 “재기”를 이루실 수 있도록
정부와 유관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음

□ 감사드립니다